

# 광주시민 49% “내년 총선 호남 신당 지지”

### 새정치 민주정책연구원 조사 ‘호남 자민련’ 우려도

### 민병두 원장 “호남·세대·이념 3대 악재 넘어야”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 신당 출현과 인구 구성비의 노령화, 유권자의 진보 이념성 약화 등 3대 악재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3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총선전략지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민 원장은 우선 ‘3대 악재’의 첫 요인으로 인구 구성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20~40대가 모두 투표장에 나와도 50~60대가 나오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총선은 세대 경쟁으로 치러질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 원장은 이어 20~40대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최대화 전략’과 함께 50~60대에는 새정치연합의 호감도를 높이는 ‘우호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친정배 의원의 당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이탈도 주요 위협 요소로 꼽았다. 정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광주지역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신당이 출현한 경우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9.1%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호남 자민련’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결국 호남 지지층들은 당의 뿌리가 갈수록 전 대통령과 광주 정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야권의 통합을 이뤄주길 바라는 민심도 감지된다고 민 원장은 설명했다. 또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8%를 차지한 반면 총지 않다는 의견(13.5%)보다 높았고 진노·비노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82.8%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의견(17.2%)을 압도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과도 제시했다.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주요 극복 과제로 제시됐다. 민 원장은 “무당파와 중도층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보수층은 충성도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서민을 위한 정당이나를 조사해도 새누리당이라는 응답이 더 높다”면서 “이제 복지 재분배가 아닌 고용·임금 분배의 평등으로 기초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대기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미래 소비자를 잃는 것’이라고 설득, 포용적 성장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야인사·486 그룹의

맥을 잇는 신주류의 발굴과 비례대표 선정 등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원장은 7대 혁신방향으로 ▲도덕성 및 규율 확립 ▲확고한 정체성 수립 ▲야당성에 대한 인식 ▲민생 경제 안보 분야에서 유능한 정당 ▲유연하며 결과를 만드는 정당 ▲국민에 귀 기울이는 온오프라인 소통 정당 ▲새로운 지평을 여는 비전 정당 등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가운데)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3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 중 원탁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대표(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7년 대선 출마하나요?

## 안철수 “그럼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워크숍에 불참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 2일 2017년 대선출마 의사를 공식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열린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현장방송에 참석, 사회자가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씩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며 “판단은 제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출마하실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럼요”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안 전 대표 측은 “원론적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의미를 들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방송에서 혁신위원직을 거부한 이유를 두고 “혁신은 대표의 몫이며 다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전대에서 혁신하겠다고 당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혁신위원장이 성공하려면 혁신안이 반발에 부딪힐 때 대표가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며 “혁신위원장의 실패가 곧 대표의 실패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안 논의를 두고는 “공천으로만 쫓겨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심을 잘 살피고 전략을 제대로 짤 능력을 다 갖춰야 한다. (물감이나 공천 문제는) 일부”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는 “국회는 위임한 대로 사형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정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근거를 잡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손사래’

### “난 이미 은퇴, 여론조사서 이름 빼달라”

지난해 7·30 수위 팔당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접어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고문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원등판론’과 ‘구애’에도 다시 한번 은퇴 사실을 강조하며 정계복귀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섰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손 전 고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자 이를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손 전 고문은 주변 인사들에게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여론조사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내 이름은 빼달라고 해달라”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측근들이 해당 기관들에 “앞으로 여론조사서 손 고문은 넣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측근인사는 “일단 조사에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기관에 앞으로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전 고문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의 복귀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에서 문을 연 한국사회발전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전 의원과도 조우,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정치학과 선우배 사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손 전 고문 측은 “평생교육원 원장인 사공홍주 대구경북지역개발 이사장이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사무실에 걸린 붓글씨를 써 줄 정도로 인연이 깊어 개인적으로 참석할 것일 뿐”이라며 “은퇴한 마당에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데 대해 손 전 고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정배 “野 혁신 이야기 ‘양치기 소년’ 같다” 주승용-정청래 ‘화해의 악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겠다는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에서 “선거에 지면 일단 지도부가 물러나고, 또 환골탈태하겠다고 늘 혁신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잠깐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과거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오도록 해야 한다”며 “야권 지지자 중에는 당 지도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문재인 대표였다면 스스로 지체 없이 당 쇄신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강력히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야당을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많은 지지자의 인식”이라며 “야



당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환골탈태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야권 재편 계획에 대해서는 “민의를 살피가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청산과 복지국가 건설 등을 위해 더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총 10여회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당 워크숍서 만나 서로 “미안하다”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한 주승용 의원과 막말 파동으로 최고위원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의원이 3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나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원탁토론 중 쉬는 시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막상 1년(당직자격정지) 나오고 보니깐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죄는 미우해도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함께 있던 정 최고위원은 “안에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안민석 교육연수원장 등의 요청으로 카페라 앞에서 악수를 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이 기한인 징계 재심신청 여부에 대해 “그동안 침묵한 것이 가장 큰 자속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선우배의 진한 우정을 느꼈다”고 말해 재심을 신청할 뜻을 시사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1박 2일간 열리는 워크숍의 전날 일정에는 불참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설득으로 이날 오후 비공개 원탁 토론회를 앞두고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아직까지 최고위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당 지도부에서 호남의 창구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기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